

SJ테크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

유 창 근*

I. 회사소개 및 현황

1. 사업 개요

SJ테크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국가의 전략적 육성분야인 부품, 소재 개발 전문 제조업체로 학교나 연구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객·환경·기술의 융화를 통하여 고객만족은 물론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여 기술인력 육성과 산업의 쌀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함을 목적으로 1997년 7월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회사 설립과 함께 IMF 외환위기라는 위기에 직면한 당사는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국제무대를 선택하였으며, 1998년에는 유압 및 공압분야의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파카사와 기술제휴를 하고 SJ기술연구소를 만들었다.

또한 당사는 국제사회에서 제품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2000년 ISO 9001 & QS 9000인증을 취득하고 2004년엔 환경인증인 ISO 14001인증까지 취득하였으며 삼성은 물론 다국적 기업인 볼보, 웨스토, 파카, 웨어차일드, 시그네틱스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 사업 분야

소재 및 부품사업부 : 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유압·공압 실린더용 SEAL분야 및 반도체칩의 이송에 사용하는 CHIP TRAY분야를 제조·관리

IT 사업부 : 경영관리 솔루션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당사의 통합전산망(ERP) 운영을 주관

R&D 사업부 : 정부산하기관 및 학술단체와 연계하여 기술 혁신과제를 선정·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연구소 운영

* (주)에스제이테크 대표이사, (주)지에스 대표이사(개성현지법인)

신제품 개발사업부 : IT, BT, NT 등의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규아이템 발굴 및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개발

3. 사업현황

경영은 의지보다는 환경적 요인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업공동화 및 이공계출신의 산업체 기피현상으로 어려워진 국내에서의 경영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 강국들의 중국 진출로 인하여 국내 산업은 더욱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당사에서 IMF 외환위기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외형보다는 부가가치 중심의 내실 위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분야 중 소재 및 부품 등의 첨단산업분야를 선택하여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그 결실을 맺고 있던 중,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

Ⅱ. 남북경협사업의 새로운 시도 및 문제점

1. 사업추진 현황

그동안 남북경협사업은 라진·선봉자유무역지대나 남포공단 등에 진출했던 남측의

기업들이 북측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교역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실패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측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나 뜻있는 기업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보다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개별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북한 진출을 시도하며 단절 위기에 놓여있던 남북경협사업을 유지하여 왔다.

정부와 기업인들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3년 8월 20일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남북한 당국은 그동안 남북교역을 통해 축적한 남북경협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의 성공모델을 모색하던 중 개성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며 남북경협을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교역위주의 남북경협을 개성공단 사업을 통하여 투자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남북당국의 합의하에 2004년 입주를 목표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정부는 우선 자생력을 갖춘 15개의 우량기업을 2004년 6월 5일 선발하였으며, 선정된 기업들은 현재 단계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다.

2. 사업의 문제점

남북경협사업은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실패에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개성공단 시범

단지에서 성공의 해법을 찾고자 남북당국이 절대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원활한 후속조치 및 전기,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지연되어,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은 초기부터 많은 문제와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Ⅲ. SJ테크의 남북경협사업

1. 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

당사의 남북경협사업은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었다. 2004년 5월 평소 가깝게 지내며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기업인이 중국에서의 사업도 이제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 같으며 개성공단에 함께 진출하자면 서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의 안내자료를 보여주어, 본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개성공단 100만평 중 15개를 선정하는 시범단지는 기대도 하지 않고 본단지 분양절차나 배우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사가 선정되었다.

한편, 함께 신청하였던 기업은 오랫동안 남북경협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 몹시 아쉬워하였는데 본단지 분양 때는 반드시 선정되시기를 희망한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소 때를 몰고 육로로 북한 땅을 밟았던 故 정주영 회장이나 대북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이끄시던 故 정몽헌 회장의 사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개성공단 시범단지 선정은 뜻밖의 기회였다. 특히 선정 당시 규모가 큰 기업체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선정에 불만을 품고 일부업체는 당사의 선정배정에 의심을 품고 투서를 보내는 일까지 있었다.

한편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입주 심의위원 선발 및 컴퓨터 심사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선정과 더불어 15개 입주기업들은 언론의 집중적 취재대상이 되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처럼 감격을 나누며 기업 나름대로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었고 당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선으로 개성을 처음 방문하던 날 우리민족의 비극인 분단의 장벽을 넘으며 50여년의 분단은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기초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허허벌판에 6개월 내에 입주를 계획한 정부의 정책은 입주기업 모두를 착잡하게 만들었으며, 오래지 않은 시간에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난 당사는 다른 입주기업과 함께 개성공단 시범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2.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향후계획

개성공단 방문후 입주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 구법에 근거를 둔 기업책임자 회의를 결성하여 본격적으로 입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논의 결과 입주기업 대표들은 임원 및 분과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건축, 물류, 금융, 노무의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였으며, 당사는 협의기구의 간사업체 및 금융 분과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사의 IT 사업부를 활용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 입주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분과 구성후 처음 1, 2차 협의회는 정부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개발업자와 입주업체간에 건축비 문제로 투자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회의 진행은 초기부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당사는 간사업체로서 정부와 국회, 개발업자 및 입주업체 사이에서 합의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서로 다른 기업의 특성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15개 입주업체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진출의 목적 이외에는 기업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어려웠으며 2004년 연내 입주의 약속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 또한 다른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의 연내 입주를 약속한 남북한 당국의 상호 신뢰 및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개성공단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업자에게 건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당사의 투자결정과 더불어 의견을 달리하던 일부 입주업체는 당사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는 당사의 투자결정후 개발업자와 투자를 결정하여 개성공단 개발의 주춧돌이 되기 시작했다.

당사의 투자결정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개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탓으로 연내입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휴일도 없이 노력한 개발업자 및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당사는 연내 준공을 할 수 있었기에 지면을 통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반드시 개성공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남북 상호간에 제도와 신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보 정책에만 편승하여 진행되었기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부 및 관계기관 또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애로를 겪으며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만으로 진행하여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남북경협 및 통일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국민 모두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IV. 남북협력기금

1. 기금지원을 받은 경위

정부는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경협사업이 어려웠던 요인을 분석하여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성공을 전제로 전략적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정부는 자생력이 있는 기업체를 선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해외지원 경험이 풍부한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던 입주기업들 대부분이 수출입은행이 위탁·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했으며 금융 분과를 맡고 있던 당사 역시 처음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이나 경쟁력을 알지 못했었다.

입주기업들이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때 당사는 수출입은행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개성공단 기금지원을 담당한 관계자가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역할과 경쟁력을 홍보함으로써 인하여 기금을 신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개성공단에 관한 금융관련 제도나 실무적 지침이 미비한 상태에서 매일 야근을 하며 당사의 실무책임자와 협의하며 기금지원의 절차 및 서식을 정립한 수출입은행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은 개성공단 기금지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중요한 계기로 여겨진다.

2. 기금지원의 효과

개성공단을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본을 직접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입주기업이나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모두가 북한 핵문제가 지속되고,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상식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당사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개성공단 사업을 2004년 연내에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 이상으로 통일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사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1호로 1차 50억원 규모

의 투자를 결정하였다.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을 때 최초로 투자를 결정한 당사의 선택과 허허벌판에 토지이용권 하나만 갖고 있는 당사에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성을 믿고 이루어진 수출입은행의 30억원 기금 지원은 여타 입주기업들의 투자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개성공단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V. 남북경협업체에 대한 바람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남북경협업체에 대한 바람

당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되었으나 남북경협에 대한 사전지식 및 정보부재로 인한 시행착오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정부 및 관계기관, 남북경협 업체들은 상호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당사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경험한 다양한 체험들을 토대로 새롭게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과거엔 불행했지만 지금은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북측의 투자 조건(언어의

소통, 양질의 노동력, 천혜의 입지적 환경)을 활용하여 썬 노동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개발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문화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북측의 문화를 충분히 파악하고 복지 및 환경경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출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과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개성공단은 경쟁력을 잃어버린 기업에게는 최상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측의 기술력과 자본, 북측의 노동력과 입지적 조건이 결합된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추과 동시에 국가경제 희생에도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 확신한다.

개성공단은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천혜의 기회임에도 정치적·군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개성공단의 현실적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남과 북이 정전상태로 유엔의 통제 하에 있는 실정에서 북한을 위험국가로 분류하여 통제 및 제재를 가한다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은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측에서도 이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도 인권, 핵문제 등을 해결하여 국제사회의 신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으므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여 순수한 남북경협의 장소로만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